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 | 보도자료 |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2026. 11. 12.(목) 배포 시 배포 2026. 11. 12.(목)

인천 강화 산란계 농장에 대한 정기 예찰 검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 H5형 항원 확인 농장에 대한 이동통제, 가축처분 및 일시이동중지 발령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11월 12일(목) 인천 강화 소재 산란계 농장(4만8천여 마리)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정밀검사 중에 있음(약 1~3일 소요 예상)

** 가금농장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현황('26.11.3.~) : 3건(연천 1, 장흥 1, 여주1)

중수본은 H5형 항원 검출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SOP)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하여 출입 통제, 가축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서울·경기 소재 닭(산란계) 농장, 축산시설(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차량 등에 대해 11월 12일(목) 16시부터 11월 13일(금) 16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축산농가에 대해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외부 차량·인력 출입통제, 농장 매일 소독,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의 축사 내 반입 시 세척·소독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주요 의심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 사료섭취 저하, 침울, 졸음, 호흡기 증상, 녹변(녹색 설사) 등

붙임.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가축전염병 통합 신고전화 ☎ 1588-9060 / 4060

담당 부서	방역정책국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책임자	과 장	황성철 (044-201-2551)
		담당자	사무관	이주원 (044-201-255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대체불가 대한민국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가금농장 5대 핵심 차단방역 수칙

농림축산식품부

가금농장 핵심 차단방역 수칙 5가지

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을 위한 농장 준수사항을 꼭 지켜주세요!

1



(출입차량) 2단계 소독(1차 고정식 소독기→2차 고압분무기)
(출입자) 전용 의복·신발 등 착용, 출입 전·후 소독

2



(축사 출입) 전실에서 전용 의복, 장갑, 마스크 및 색깔이 구분된 장화 착용 후 소독 실시

3



(부출입구) 소독·방역시설이 미설치된 농장의 부출입구와 전실이 미설치된 축사의 뒷문(쪽문) 폐쇄

4



(농장 내·외부 및 진입로) 매일 소독 실시
(기계·장비) 반입 시 농장 진입 전에 세척·소독 실시

5



(야생동물 차단) 축사 구멍 또는 틈새 메우기, 차단망 설치·보완 등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등 이상 증상 확인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 ☎ 1588-4060, 1588-9060